
2009 지방재정 세미나



개 회 사

김 국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개 회 사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현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장님,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님, 유태명 동구청장님, 그리고 신종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를 맡아 말씀을 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부실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지출확대와 조기 집행’, ‘일자리창출 및 나누기 사업’을 통해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급속한 경기침체와 실업발생을 억제하여 경제적 위기극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제회생에 대한 청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여도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자주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소득소비세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의 지방재

정 지원방식을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세·지방세 체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이제 지방정부는 외부의 자본, 외부로부터의 투자에 의존하는 외래형 발전방식이 아니라 주민참가에 기초하여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기초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의 생산과 삶의 쾌적성 간에 균형을 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은 현재세대의 욕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도 배려하고, 풍요로운 인간개성의 함양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고용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교육·교육의료·문화정보 등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對人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가지 유념할 것은 오늘날 정보화·세계화·민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려면 ‘과부하(overload)’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집단, 공제단체 등 광범위한 비영리조직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빛고을’ 광주에서 세미나를 통해 지방공무원 여러분, 학계 전문가, 우리 공제회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주신 지방재정발전의 진정한 주역이신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8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 국 현